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70 YEARS 1953-2023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지진 피해를 입은 안디옥 현장

PRAY FOR Türkiye · Syria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시리아,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터키) 동남부 하타이주 안디옥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에 84년 만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인해 2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부상자, 삶의 터전이 대부분 붕괴되는 가슴 아픈 참사의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형제나라 튀르키예의 도심과, 내전으로 오랜 세월 몸살을 앓고 있는 시리아의 국경지대 건물들은 힘없이 무너졌고 강추위와 폭풍우로 구조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는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과 저희 가정,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한 권순정 목사는 다행히 무사하다. 안타까운 것은 광림교회에서 봉헌한 안디옥 개신교회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는 아픔을 겪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이곳은 구조의 손길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고 김선도 감독님이 1993년 튀르키예 성지순례 중에 선교 비전을 품고 7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6월에 봉헌한 교회이다. 옛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안디옥에 세운 최초의 개신교회이기도 하다.

김정석 담임목사와 광림교회 장로들은 안디옥 개신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6.25 참전용사 가족을 위한 행사'에 참석하고자 2월 6일 선교여정을 떠났다. 그러나 이스탄불 공항 도착 3시간 전에 튀르키예의 지진 소식을 접했고 이 지진으로 현지 모든 국내선 환승이 취소되었다. 지진으로 인해 안디옥 광림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안디옥 개신교회도 소실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6.25 참전 용사를 위한 행사 사전준비로 현지에 체류 중이던 권순정 목사(광림교회 목회선교지원실)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달받은 김정석 담임목사와 성지순례에 참여한 장로들은 현지 상황과 구호 대책 등을 긴급하게 논의했다.

현재 안디옥 개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호 선교사와 권순정 목사는 지진 피해가 큰 안디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정상 구호품의 직접 전달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안디옥 지진 현장으로 복귀하는 권순정 목사와 장성호 선교사를 통해 우선 가능한 긴급지원금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권순정 목사는 당분간 현장에 잔류하여 구호와 원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대한민국 긴급구조팀 110여 명은 피해가 가장 심한 안디옥에 파견되어 인명구조에 힘쓰고 있으며 안디옥 지역은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큰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시리아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가 온전히 재건되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긴급구호금을 모으며 기도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상희 기자

2 광림의 강단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3 광림 스토리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
5 다음세대 청년부 해외 단기선교
6 믿음의 현장 광림서교회, 북교회 소식
7 믿음의 현장 아펜젤러선교센터·1선교구업무협약식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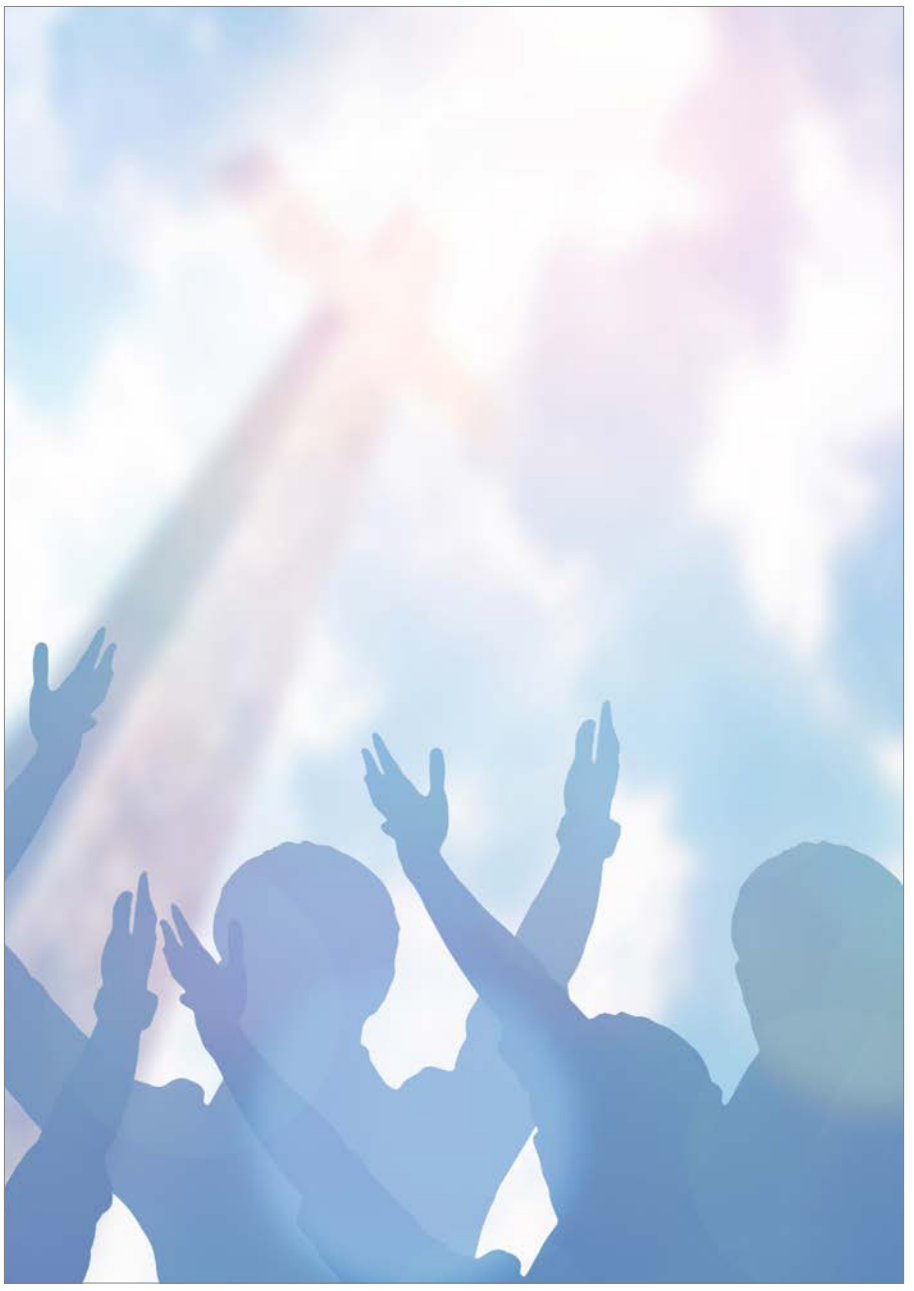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창세기 35:7)

야곱은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얍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 에서와 화해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후의 삶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한 일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며 그는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나의 삶은 평탄하지 않은 것일까?' 고민하던 야곱은 30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진노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루스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했었는데, 지난날을 돌아보니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문제가 해결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벧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즉각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야곱은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1~8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벧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첫째, 세상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벧엘로 올라가기 전 야곱은 먼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 중 상당수는 밧단아람이라는 곳에 살면서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곳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벧엘에 올라가기 전 우상을 버리는 것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던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매일 매일 새롭게 되리라고 다짐하면서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쁜 습관이 우리의 뇌와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은 삶에 유익을 주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야곱이 벧엘로 떠나기 전 모든 이방 신상을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과거의 나쁜 습관, 잘못된 관념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충족되어져야 할 조건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벧엘에 오르기 전 먼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를 멈추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 앞에 치열하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정결해지고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충족되어져야 할 조건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난날의 나쁜 습관들, 잘못된 관습들을 버리고 죄를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벧전 2:1) 악독은 나쁜 쪽으로 사람을 보는 오해, 미움 등을 말합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진심이 아니라 위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악의에 찬 말로 누군가를 헐 뜯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나 중심의 삶, 즉 내 성공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성공을 위한 삶 뒤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낡은 성품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히틀러에 항거하여 죽임을 당한 독일의 순교 신학자인 본 회퍼의 옥중서신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히틀러의 총과 칼이라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해지면 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내가 위험을 극복할 담대함을 가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악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1회 사단법인 광림 총회,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

지난 1월 29일 오후 12시 30분, 웨슬리관 1층 예수와홀에서 2023년 사단법인 광림총회와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가 열렸다.
김정석 담임목사와 한정희 사모를 비롯해 사단법인 광림의 임원과 주간보호·사랑부 운영위원회, 사랑부 교사와 학생까지 총 150여 명이 모여 행사가 진행됐다. 사랑부 교사들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사랑부 교사 임명식과 함께 모범교사 11명, 5·10·15·20·30년 근속교사 16명이 차례대로 시상대에 올라 김정석 담임목사의 축하를 받았다.

사랑부 5년 근속교사와 모범교사 수상자인 김기호 집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킨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어 점차 사랑부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지난 5년 사랑부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사랑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섬김과 나눔, 돌봄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귀히 여기는 사랑부 공동체가 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봉사를 하지만, 사랑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며, "저들의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며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임명예배에 이어 2022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을 보고함으로써 11회 사단법인 광림총회가 마무리됐다.

이정우 권사(사랑부)

의료선교회 신년 임명예배

광림교회 의료선교회는 지난 2월 4일(토) 양의문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다. 의료선교회 회원과 봉사자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시상, 임명식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정하원 장로의 사회와 윤두중 장로의 기도로 진행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발돋움하는 시간이다. 의료선교회 회원들이 예수님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의료선교회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픔을 당하는 자의 상한 심령과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지난 의료선교회 위원장이었던 문찬수 장로에게 공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입 의료진 및 의료지원팀 환영행사를 가졌다.

2023년 의료선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하원 장로는 "의료선교회원들 모두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한곳을 바라보며 선교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올해 목표는 첫째, 의료진 회원 배가 운동으로 교회 안팎에서 의료진의 선교참여를 권면하고 둘째, 예배중 발생하는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상시 양호실 체제를 갖추고, 진료과목과 상담시간 늘리기. 셋째, 회원들로 모든 진료과를 갖춘 사이버 종합병원을 구축하여 환자상담 및 담임목사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기. 넷째, 해외 진료팀을 구성하여 해외의료선교와 선교센터에 약품전달사업 활발히 하기. 다섯째, 목회자, 교회직원, 이주근로자, 한시적 무보험자 등 의료약자에게 도움 주는 든든한 이웃으로 서는 의료선교회 되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광림교회 의료선교회는 1981년에 국내 교회 중 최초로 의료선교회가 설립되었고, 국내외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매주일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교회행사에 의료진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성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백명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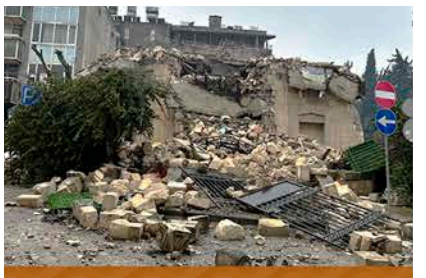
2023년 광림교회 교육부, 교사임명예배

지난 1월 29일 주일 저녁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3년 교사임명예배>를 드렸다.
광림교회 교육부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영어예배부, 어와나, 중등부, 고등부, 광림어린이축구교실, 웨슬리문화센터, SSA, 남교회문화센터가 있다.
이번 교사 임명예배에서는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11명의 교육위원장, 각 부서 부장과 총무를 비롯해 총 420명(본당, 지교회)의 교사가 임명되었다.

이번 교사임명예배에서는 5년 근속 교사 27명, 10년 근속 교사 14명, 15년 근속 교사 6명, 20년 근속 교사 4명, 25년 근속 교사 5명, 30년 근속 교사 3명이 근속상을 받았다. 교사로 40년 근속한 이효영 권사(소년2부)와 35년 근속한 박화정 권사(어와나)가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본당과 지교회(남,서,북교회)의 모범교사 33명도 모범상을 받았다.
특별히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 기도회를 세우기 위하여 유선례 장로를 기도 백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저의 전도사 시절에도 소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던 이효영 권사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고, 성가대를 하시며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박화정 권사가 한결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심이 경이롭고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교사 여러분의 가르침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면 한국교회의 한 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곧이 쓰임 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라며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희윤 기자



PRAY FOR Türkiye · Syria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시리아,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2000년 6월, 광림교회에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초대교회 이후 최초로 봉헌한 개신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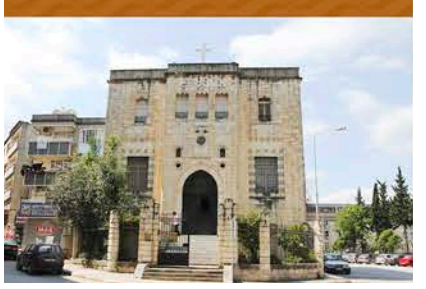
기도제목

1. 강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2.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물에 매몰된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며 더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3. 강추위와 전염병의 위협에서 이재민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조작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현지의 필요(대피처, 운송수단, 음식, 담요 등)에 따른 도움의 손길이 신속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4.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조대원과 구호팀 및 의료팀, 현지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5. 지진의 위험 가운데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광림교회 소속)와 교우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시고 구호 사역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교우들의 생활 터전이 속히 재건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6. 안디옥 개신교회 난민 구호팀이 원활히 활동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구호금 계좌

우리은행 1005-803-992104
(기독교대한감리회광림교회)

계좌 이체시 입금자명에
'교구 + 성명 + 터키'
(예시: 1교구 김광림 성도
→1 김광림 터키)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구호물품은 현지에서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남·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 2023년의 비전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여선교회총연합회〉

2023년도 여선교회는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을 받들어 부요케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동탄성전 건축에 집중하며 잊을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어려운 시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많은 헌신을 해주신 468개체 회장님들과 회원님들, 35명의 연합회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 여선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는 광림교회에 집중하려 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손으로 쓸고 닦고 고치며 시작하는 성전사랑 캠페인을, 내적으로는 성전사랑으로 예배를 지키고 기도에 힘쓰며 뜨겁게 전도하여 일꾼을 세우고 성전을 채워나가는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한 후회없는 헌신을 올리는 여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회원이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선교사명의 본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께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화열 권사(여선교회총연합회장)

나눔과 봉사, 헌신의 〈실업인선교회〉

실업인선교회 (이하 실선)는 2023년 교회 표어처럼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전하는 선교회'로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실선으로 담임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는 실선이 되고 교회내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과 서로 협력하고, 젊은 기업인들(YBL: Young Business Leaders)을 세우며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기업인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잠비아 광림 선교센터 준공식과 잠비아 선교센터가 굳게 자리잡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을 감당하고 앞으로 담임 목사님의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교회내 세우신 많은 기관들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과 사랑 나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미래 실선을 이끌 젊은 기업인들(YBL)의 가입을 권면하고 양육하여 교회의 온전한 사랑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기업인으로 체험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거듭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삶과 기업 현장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실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선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내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권후원 장로(실업인선교회장)

선교, 복음, 사랑의 공동체 〈남선교회총연합회〉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이라는 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지만 남선교회가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쓰고 몽골 어르비트 선교센터와 동탄성전 건축 등 선교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에벤에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었습니다.

2023년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남선교회'라는 목표 아래 주어진 사명을 믿음과 감사로 감당하며, 국내외 선교 봉사 나눔, 영성에 더욱 힘써서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빛의 중심 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남선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입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이를 위해 안으로는 선교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립 70주년인 금년에는 첫째, 밖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통일성취기도회와 진중세례식 등 군선교, 은혜로 받은 부요케하는 생명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안으로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선교공동체, 복음공동체, 사랑공동체로 하나 되는 에너지인 전교인체육대회, 스데반 디모데 바울 웨슬레등 모든 연령대의 개체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활성화되는 일에 매진하여 남선교회의 부흥이 광림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남선교회가 수년간 기도하며 애써온 40~50대 젊은 성도들의 부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스데반과 디모데 선교회가 활성화되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광림교회의 내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임원전지훈련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헌신, 시간헌신, 물질헌신으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남선교회와 모든 임원과 회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

땅 끝까지 선교하는 LFC 청년선교국

<2023 상반기 해외 단기선교> 1월 21일~ 2월 20일까지 진행

우간다 시온산 공동체교회

필리핀 데리아교회

LFC 청년선교국의 <2023년 상반기 해외 단기선교>가 1월 21일~ 2월 20일까지 우간다, 필리핀, 이스라엘, 베트남에서 진행중이다.
청년선교국 해외선교팀에서는 땅끝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1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4개 나라에서 이번 상반기 단기선교를 요청하였기에 부르심에 응답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다.

현재 해외선교지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교회학교가 무너졌고 활발하게 진행하였던 전도 및 선교 활동도 중단된 상태이기에, 닫혀 있었던 선교를 재개하기 위하여 광림교회의 훈련된 청년 단기선교팀의 헌신을 부탁하였다. 이번 선교에는 약 250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35명은 '가는 선교사'로 215명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
지난 1월 21일(토)에는 우간다 무코노(Mukono)지역으로 단기선교팀이 출발하였다. 우간다팀은 시온 마운틴 공동체 교회에서 지역 아이들과 예배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레크레이션을 통해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특별히 이번 선교팀은 우간다 최초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으며 약 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마련하여 410명의 아이들에게 일년에 한번 경험하기 힘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학업에 필요한 공책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선교팀은 마을 복음전도, 어린이 사역, 청소년 컨퍼런스 참여, 우물 봉헌식 등 한 주 동안 쉼없이 선교하였고 지역 청년 사역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간다 선교팀 권오준 팀장(청년 2교구)은 "하나님이 우간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리에서 목소리 높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아름다운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필리핀 팀은 1월 21일에 출국해 아이타 민족과 필리피노 민족을 위해 세워진 8개의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하였다. 특별히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산속에 살면서 구황작물만 먹는 아이타 성도님들에게 닭죽을 대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또한 8개 교회의 학생들에게 워십, 수화, 기타, 피아노, 난타, 인형극 등의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 두 민족이 갈등을 넘어 주 안에서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현지 학생들을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로 훈련하였다.
필리핀 선교팀 정진우 형제(청년 3교구)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제 2월부터 이스라엘과 베트남으로 단기선교팀이 출발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하는 LFC 청년들을 통하여 열방을 부요케 하시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트리니티찬양단, 2023년 태국 선교 다녀와

매년 태국 선교를 다니는 아내가 이번에 함께 가자는 권유에 사진 찍는 일이나 도와주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했다. 첫날 방콕에서 수백km를 달려 북부 펫차분 시골 마을로 갔다. 트리니티찬양단의 일정은 교회와 학교에서 공연, 전도 활동, 아이들과 놀아주기, 기념 사진 찍기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찬양은 '교회의 존재'와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 사역자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국은 아직도 기독교 불모지이고,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이었다. 이런 열악한 사정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은 트리니티찬양단 공연을 간절히 기다렸고, 코로나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었다. 공연의 시작은 모듬북 난타로 시작하고 찬양과 율동으로 이어졌다. 클래식 명곡들과 흥미를 돋우기 위한 BTS의 '다이나마이트'를 배경 음악으로 한 난타공연, 한국 전통춤 공연으로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다. 8박10일, 2,000km 이상 이동, 하루 2~3회 총 12회 공연이라는 강행군 일정이지만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우리가 간 교회마다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에 숨겨진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 오지에 30년 세월을 교회가 세워지길 기다리며 기도한 식품점 할아버지, 걸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교회가 세워지며 걸어서 교회에 가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할머니가 기도하며 예비한 땅에 아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90세 목사님께 부어진 축복을 보며 할렐루야 감동이 넘쳐났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다. 낡은 신발과 옷, 구멍 난 양말,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의 모습에서 삶의 처지를 가늠할 수 있었고,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하니 잊고 살았던 '어릴 적 내 모습'을 보는 듯 마음이 아팠다. 가난했지만 즐거웠던 주일학교 시절이 내 신앙 생활에 기초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태국 아이들도 함께 한 시간들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이번 선교에는 암 투병 중인 집사님, 퇴사하고 오신 집사님, 어려운 처지에 동참하신 분들, 모두 신앙에 큰 성장을 경험하셨다고 했다. 결국 '전도, 선교, 구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지만 돌아와서도 천사 같은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아이들 속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권혁봉 집사(광림남교회)

신앙 간증

복 주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반 5교구장 김정연입니다.
저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4~5).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가 아님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84편 말씀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84:4)

제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고민하고 있을 때에 시편 말씀을 통해, 참 기쁨은 하나님의 전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생각이 많아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었으며 읽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만나게 된 2023년도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함께하는 모두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모든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김정연 교구장(청년부)

목회현장

'사랑하니까'

윤사무엘 목사 (5선교구)

'삶은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목회도 끊임없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상수(上壽)에 거의 다다른 한 집사님을 심방하면서 진심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에 예배와 속회 뿐 아니라 교구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심방 받는 날이라며 아침 일찍이 화장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후 다과를 나누며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 연세에 교회 오고가시는 길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집사님이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하십니다. "힘들긴요. 저는 평상시 힘들다가도 교회에 갈 때면 힘이 나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가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자 그 다음에 나온 집사님의 대답은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단하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비록 짧지만 지금까지의 목회 걸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배, 설교, 심방, 행사 등 여러 과업을 감당해오면서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걸어왔을까? 사명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숙제를 풀 듯 풀어 넘긴 것은 아닐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한계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제자는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본질을 붙들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랑은 어떤 구호나 외침이 아닙니다. 절대적 기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그 사랑에 새롭게 눈 뜬 우리는 예배와 전도, 기도, 모임을 열렬히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심방을 비롯한 말씀전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고, 깨닫고 붙잡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사랑에 다시 눈을 뜬 한 성도님이, 또 집사님이 예배를 회복했고, 지금도 성령님은 사랑의 작업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광림서교회

교사,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광림서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의 사명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날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준비 하신 계획 중 스스로도 가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긴 해외 유학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한국에서 광림서교회에 첫 발을 디딘 그 날부터 같은 역할로 봉사하며,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저의 신앙도 성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심장이 두근거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달라며 매달렸던 일들도 떠오릅니다.

제가 서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가졌던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초선의 원으로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느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는 사실 크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진다고 믿기에, 오직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으로 지금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미래의 사역을 위해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일학교를 지키고 싶습니다. 딱 10년만 더 하라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김원진 교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새가족 속회

"300명의 예배자, 100명의 다음세대, 30속회와 15선교회", 2023년 한 해 광림북교회가 꿈꾸는 목표이자 기도제목입니다. 그동안 광림북교회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고,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해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를 새가족과 속회를 세워가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등록을 결정하면 처음 교회 이미지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도들과의 만남, 즉 속회입니다. 이 중 71교구 4지구 13속은 새가족 속회입니다. 13속의 특징은 따뜻하고 편안한 어머니의 품 같은 속회라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새가족들은 광림교회를 배우고, 광림의 신앙전통을 배우고, 광림교회 성도들의 신앙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속장으로 섬기는 강길순 권사님은 새가족 속장으로 부담감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하면서, "저의 말과 눈빛, 작은 배려로도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되새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속회지도자 교육 때 담임목사님께서 "속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소명을 각인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 모여진 공동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광림북교회 새가족속이 계속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즉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돕고 섬기는 공동체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3선교구

〈예배 드리는 가문세우기〉 프로젝트

3선교구(선영진 목사)는 2월 11일(토)부터 2주간 '성경적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예가(예배드리는 가문세우기) 프로젝트를 유튜브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선영진 목사는 심방을 하며 만나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고민인 '몸이 약해져 예배당에 갈 수 없거나,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또한 '믿음의 유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첫 강의는 '성도는 방향을 남깁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마치 성지순례를 가듯 영상 속에서 요르단의 느보산으로 이동하여 모세가 남긴 믿음의 유산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다. 선영진 목사는 "느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 여정을 마감한 곳이자 삶을 마감한 곳이다. 모세의 무덤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것은 눈에 보이는 무덤이 아닌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인 가나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도는 자녀들에게 가문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배드리는 삶을 위한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건강할 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예배드리는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한 미션도 있다. 좋아하는 찬송가와 성경구절을 자녀에게 알려주기, 자녀와 함께 교회 오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편지 쓰기 등이다. 3선교구는 예가 프로젝트를 통해 각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예배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예배 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소현수 기자

영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온라인 성경쓰기'

성경필사는 성경을 한 글자씩 직접 손으로 옮겨 적으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신앙 활동의 하나다. 단순히 읽는 것 보다 쓰면서 읽는 것이 5배의 효과가 있다고도 하며, 성경을 옮겨 적으면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 보면 영의 양식을 더욱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

성경필사는 보통 종이와 펜을 가지고 쓰는 것을 말하지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성경쓰기'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온라인으로 필사를 하려면 광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뉴바에서 '교회생활'을 클릭하고 '성경쓰기'로 들어가면 된다. 간편한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PC 등 어느 기기에서도 쉽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고, 자동저장이 되고 이어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를 교체하여 이용을 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 좋아하는 곳부터 선택하여 쓸 수가 있고, 개역개정판이나 개역한글판 뿐만 아니라 NIV 영어성경도 선택하여 필사를 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쓰게 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며, 성경을 인쇄로 출력하여 목회선교지원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제본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 현재 온라인 성경필사를 완료한 성도는 총 27명이며, 2회 이상 이름을 올린 성도는 5명으로 4회 이봉순 권사(51교구), 3회 성은미 권사(3교구)이며, 2회는 조지연 성도(광림북교회), 양혜선 집사(4교구), 장영미 권사(51교구) 등이다.

이봉순 권사는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1회 완료한 다음 22년 4월, 8월, 12월에 각각 1번씩 총 4번을 완료하고 지금 5회째 성경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권사는 "남편(김영덕 권사, 1회 완료)이 먼저 시작했는데 참 좋다고 권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손글씨로 필사를 하고 있었고 또 핸드폰으로만 글을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자판으로 글을 쓰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니까 지금은 매우 편하고 좋다.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낮에 일을 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 일 이외에는 매일 12시까지 성경을 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한 번 읽은 것이지만 성경이 늘 새롭게 와 닿으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1선교구 &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자매결연식

1선교구(강명남 목사)는 2월 1일(수) 오전 11시 아펜젤러 인우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고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와 자매결연식을 맺었습니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 광림교회의 손길을 통해 기존 인우학사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11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육신의 안식과 재충전, 재교육의 장소로 사용되는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를 방문한 1선교구는 이상훈 목사(센터장)의 소개를 통해 선교사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직접 듣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도 국내외 선교지와 각 선교구별 자매결연을 통해 위축된 선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담임목사님의 선교적 비전과 의지를 따라 1선교구는 적극적으로 기도와 후원에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결단하고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업무협약서 교환, 준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구 연합회와 각 교구가 정성을 모아 100만원을 조승현 권사(연합회장)가 대표로 전달하였고, 1선교구 교역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모인 50여명의 성도님들의 개인 후원과 헌금도 선교센터를 위해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46가정 227명의 선교사들이 방문하였는데, 앞으로 감리교 파송선교사를 넘어 타교파 선교사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선교구는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각종 필요에 대해 소통하고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도울 예정입니다.

2023년도 표어처럼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실천의 자리에 1선교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할 것을 믿기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선교사역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명남 목사(1선교구)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②
동시통역위원회

28년간 영어 동시통역, 강연희 권사

지난해 12월 28일 당회구역회에서 담임목사로부터 동시통역위원회 강연희 권사(25교구)가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강연희 권사는 소위 '통역의 꽃'이라는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로서 출장길이 잦고,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어머니로서 분주한 일상을 보냈다. 그럼에도 28년을 한결같이 통역으로 섬긴 강연희 권사를 만나보았다.

28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사실 1990년대 처음 시작할때는 교회 나와서 1부 예배 드린 후 집에 가서 아이들을 챙겨 3부 유아부에 맡기고 3부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은혜를 받더라구요. 통역을 하면 목사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때보다) 더 은혜를 받아요."

에피소드나 소감

"신기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주일에 통역이 펑크가 난 때가 없었거든요. 한번은 다른 위원님이 깜빡 한 번 순서를 잊고 안 나오셨는데 그 날 따라 제가 우연히 통역실 입구 쪽에 앉아 있어서 안내팀장님께 연락 받고 급히 부스로 뛰어올라가서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통역위원회 지킴이들은?

"우리 통역팀을 지켜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성익 안내팀장은 설교통역이 시작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계세요. 한번은 통역 부스에서 제가 시작 버튼을 못 누른 것을 알고 한 팀장은 단번에 부스로 달려오셨어요. 또 박영준 장로님은 노트북, 프린터 등 모든 비품을 부스에 새로 설치해 주시고 모니터 등 모든 통역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시고 모든 운영 절차를 물심양면으로 꼼꼼히 챙겨주십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통역사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통역을 섬겨주시는 박찬규 팀장님과 김정일 위원님과 남지원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통역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설교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통역팀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설교 통역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문법이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느껴지는게 있거든요. 설교 통역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으세요. 일단 설교 통역하면 느끼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라고요."

안미영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5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한복음 12:3)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는 베다니에 갔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예수와 제자들이 도착하자 나사로와 그의 누이는 예수와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 낸 예수를 위하여 마르다는 정성을 다하여 식탁을 준비했다. 동생 마리아도 기쁜 마음으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다.
식탁에는 온갖 음식이 즐비하게 놓였다. 예수는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당시 유대의 식사문화에 따라 발을 뒤쪽으로 길게 뻗은 비스듬한 자세였다.
식사가 한창일 때 마리아가 옥합(玉盒)을 들고 왔다.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어진 옥합은 여인들이 향유(Nad,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가의 향수) 같은 귀중한 것을 담아서 보관하는 데 사용한다. 옥합을 소중히 안고 들어온 마리아는 갑자기 예수의 뒤쪽으로 갔다. 그러고는 예수의 뒤에서 향유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머리에 부었다. 예수의 머리를 적신 향유는 발까지 흘러내렸고, 마리아는 자기의 긴 머리로 닦았다.
진한 향유의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향유의 황홀한 냄새만큼이나 집 안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처음 맡아 보는 진한 향내에 모두가 황홀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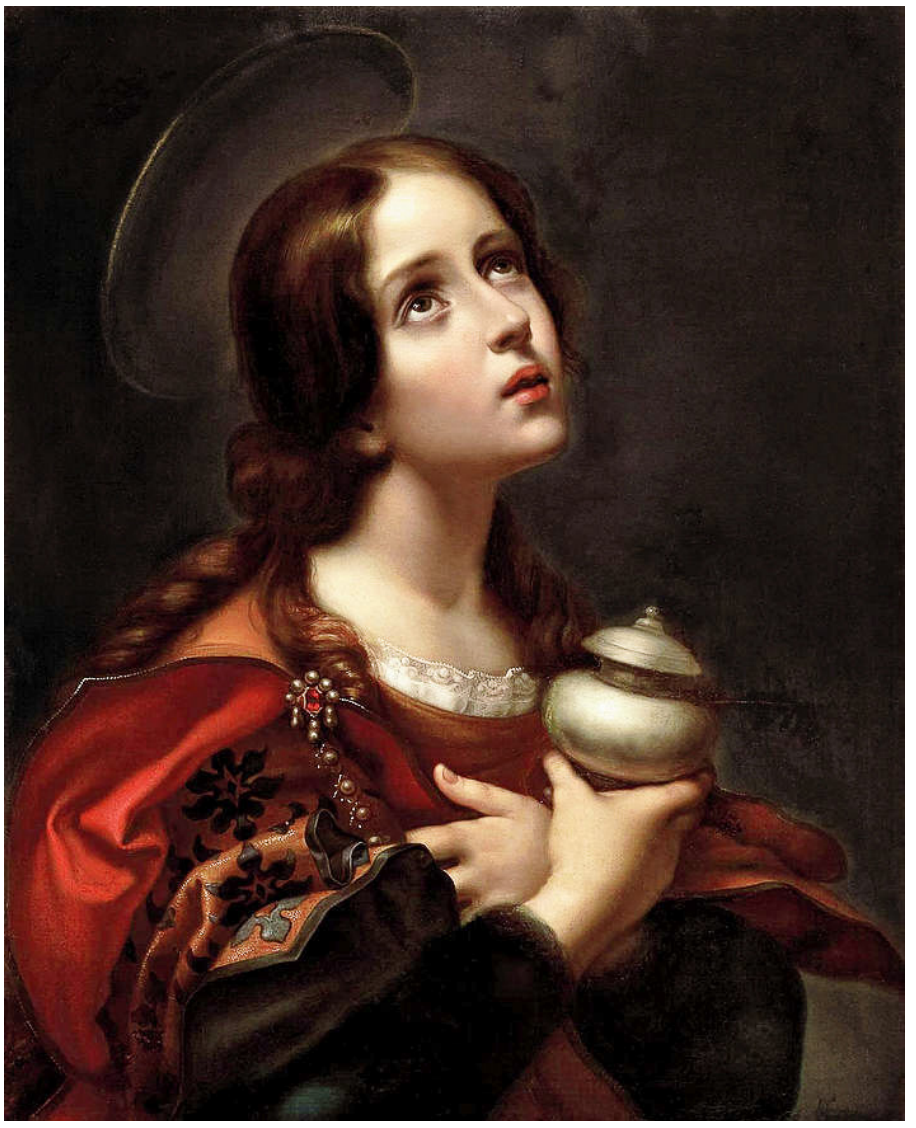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은 불만과 분노에 가득한 표정이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3백 데나리온은 충분히 받을 텐데……."

당시 향유의 가치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거액이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도둑이었다. 일행에서 재정(財政)을 맡고 있던 유다는 몰래 공금(公金,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예수가 말하였다.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오늘 마리아는 내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기름을 부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다시 모두에게 말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억되고 기려질 것이다."

이처럼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산헤드린 회의와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할 작정으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갔다. 그들은 두둑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도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 **향유 옥합을 들고 있는 마리아_** 유월절 엿새 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할 날을 위해 그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였다. **카를로 돌치의 작품**

◀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_**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한창이며, 나사로는 화덕의 불을 살피고 있다. 갖가지 음식 그릇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나사로의 부활에 감사하는 잔치임을 알 수가 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 화파인 야코포 단 폰테의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명암의 강한 효과로 그림에 생기를 넣어 주는 '절대 명암법'의 창조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야코포 단 폰테의 작품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